

부산국제금융진흥원, Focus On Busan 2024 발간

✎ 이종도 기자 | ☎ 승인 2024.04.12 10:20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이명호)이 국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와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에 대해 설명하는 영문 특집 단행본 'Focus on Busan 2024'을 Z/Yen사와 4월 공동 발간했다.

Z/Yen사는 런던금융특구 소재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킹을 위해 FS클럽을 운영중이며, 본 단행본의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Z/Yen사와 공동발간으로 진행됐다.

본 단행본을 활용해 Z/Yen사의 FS클럽에서 활동중인 138개국 5천여개 금융기관과 3만명의 금융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홍보를 진행한다.

본 단행본은 부산이 남부권 신성장 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안(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기회 발전 특구)'을 집중 조명한다. 책자 발간을 위해 부산시를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이 공동 추진을 하였다.

특히, Focus on Busan 2024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해양·디지털·지속가능금융 발전사안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 금융전문가들에게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부산을 알려 위상제고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Focus On Busan 2024

April 2024



Financial Centre Futures



세계적인 해양금융허브로서 해양금융종합센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활동을 조명하며, 디지털 금융허브로서 주요발전사안(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추진, D-valley 조성)과 핀테크 육성 생태계(U-Space, S-Space)에 대해 소개한다. 지속가능 금융허브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세계적 규모의 ESG 채권 발행과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전환을 위해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펀드설립도 설명한다.

또한,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수소·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부산을 소개하며, 2021년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수소, LNG 등 친환경 인프라 확장 계획도 담겨있다.

단행본은 Z/Yen사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은 “이번 게재를 시작으로 매년 부산 금융중심지의 발전사안을 알리는 영문 특집 단행본을 발간하여 부산 글로벌 금융 허브 위상제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도 기자 leejd05@e2news.com